

재학생 취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이대창 한국고용정보원 연구본부장

I. 머리말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의 저출산 추세로 인해 인구와 노동 공급의 증가세가 둔화하여 왔고, 앞으로는 감소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 2,718만 6천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보다 주력 근로연령층인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2).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력 공급 감소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노동력 활용 실태를 볼 때 추후 노동력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계층으로는 대체로 고용률이 비교적 낮은 청년층과 여성층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를 통해 노동력을 확충하는 방안은 지금까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아울러 정년 연장 등 주된 일터에서 퇴직연령을 높이는 방안과 점진적 은퇴와 정년 후 재고용 확대를 통해 중고령자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 절대 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청년층 노동력 공급 감소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청년층 고용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현재까지 주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그룹의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춰 왔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서는 청년들이 겪는 실업을 줄이는 방안이 많이 논의되어 왔고, 대학 졸업생의 구직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취업시키는 방안에 주목했다. 다른 한편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관심은 주로 청년무업자 또는 니트(NEET)에 집중되어 왔기 때

청년층 절대 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청년층 노동력 공급 감소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문에 학생이나 장기간 취업 준비 상태에 있는 그룹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적 배려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다.

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청년층 노동 공급의 감소가 예상되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청년 학령인구를 노동시장 참가와 노동 공급의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학생 취업이 노동력 공급 확대라는 순기능 외에도 다른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먼저 학생 취업은 졸업생의 학교-직장 이행을 도울 수 있고, 나아가 학부모와 국가의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향후 청년층 노동 공급의 감소가 예상되는 시대를 맞아 더욱 적극적으로 청년 학령인구를 노동시장 참가와 노동 공급의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

II. 재학생 취업 실태

1. 청년층 및 재학생 고용 추세

우리나라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1980년대 초에 비해 5%p 가량 감소한 상태이다. 청년층을 5세 연령 구간별로 더욱 세분하여 보면, 주로 고등학교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15~19세 층이 약 15%p, 그리고 주로 대학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20~24세 층이 13%p 가량 감소하였다. 두 집단을 합한 15~24세 층의 고용률은 1980년대 초에 비해 15%p 정도 하락하였다. 반면 25~29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1980년대 초에 비해 9.5%p 가량 상승하였다.

이제껏 청년층 고용 문제에서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군복무 이후와 대학 졸업 이후 25~29세 남성 청년층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실업 및 구직 기간의 장기화 문제였다. 물론 최근 고졸 채용 확대와 선취업-후학습 경로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대학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25세 미만 청년층의 취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오랜 기간 대학 취학 연령에 해당되는 25세 미만 청년층의 취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표 1. 연령계층별 청년층 고용률 추이

(단위: %)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15~24세	15~29세	20~29세
1982	21.8	56.7	60.2	38.2	45.3	58.5
1985	15.6	52.8	59.8	32.0	41.8	56.7
1990	13.2	58.9	64.7	32.5	43.6	62.1
1995	11.0	59.3	67.0	34.6	46.4	63.5
1998	8.3	50.0	62.9	27.1	40.6	57.4
2000	10.3	52.0	66.1	29.4	43.4	60.1
2005	8.0	51.6	68.9	29.9	44.9	61.2
2010	6.1	44.3	68.2	23.0	40.3	58.2
2011	6.8	43.5	69.7	23.1	40.5	58.5

주: 고용률은 각 연령계층의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임. 군인과 재소자는 생산가능인구에서 제외되거나 학생이나 주부는 포함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2. 각급학교 취학률

(단위: %)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1980	4.1	97.7	73.3	48.8	11.4
1990	31.6	100.5	91.6	79.4	23.6
1995	26.0	98.2	93.5	82.9	36.0
2000	26.2	97.2	95.0	89.4	52.5
2001	27.1	97.4	95.7	89.7	55.1
2002	28.4	97.6	94.8	88.2	56.4
2003	29.0	98.6	93.1	89.3	58.4
2004	29.5	98.1	92.3	89.3	61.4
2005	31.1	98.8	94.6	91.0	65.1
2006	33.9	98.8	96.2	90.3	67.8
2007	36.2	99.3	96.0	91.3	69.4
2008	38.0	99.0	93.2	90.0	70.5

주: 취학률=(취학 적령의 재적학생 수/취학 적령 인구)×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통계연보.

대학 진학이 보편화되고 대학 진학 시 대부분 취업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청년층 고용률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

이렇게 25세 미만 청년층의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급속하게 상승한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각급 학교 취학률 추이를 보면 고등학교 이하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대학교는 2000년대 들어서만 18%p 상승하였다. 이렇게 대학 진학이 보편화되고 대학 진학 시 대부분 취업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청년층

고용률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더욱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나타난 학생층의 고용률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세 재학생의 고용률은 2000년 6.98%에서 2011년 12.59%로 약 5.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고교 단계 학령층인 15~19세 층에서는 2000년 1.19%에서 2011년 2.76%로 상승했다. 즉, 대학생 연령층에서는 100명 중 13명 정도, 고교 단계 연령층에서는 100명 중 3명 정도만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15~29세 청년층 학생 전체의 고용률은 2011년 현재 5.5%로 학생 1,000명 중 55명 정도만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고 있다.

표 3. 재학생 취업자와 학생고용률 추이

(단위: 천 명, %)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취업자	전체	140	163	218	231
	15~19세	38	57	80	82
	20~24세	67	84	114	125
	25~29세	26	18	20	18
	15~29세	131	159	214	225
	30세 이상	8	5	5	6
학생	전체	4,511	3,700	4,199	4,203
	15~19세	3,201	2,634	2,990	2,969
	20~24세	960	833	942	993
	25~29세	290	195	223	196
	15~29세	4,452	3,663	4,155	4,157
	30세 이상	59	38	45	46
학생고용률 (취업자/학생)	전체	3.10	4.41	5.19	5.50
	15~19세	1.19	2.16	2.68	2.76
	20~24세	6.98	10.08	12.10	12.59
	25~29세	8.97	9.23	8.97	9.18
	15~29세	2.94	4.34	5.15	5.41
	30세 이상	13.56	13.16	11.11	13.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2. 재학생 취업 기피 원인

청년 학생 1,000명당 55명 정도만 취업을 병행하고 있음은 학업-취업 병행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환경을 생각

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용돈을 버는 수준이고, 이들의 취업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생

하면 15~19세 연령층 학생의 고용률이 매우 낮음은 쉽게 이해된다. 촌각을 다투가며 입시 준비를 하는 고등학생이 재학 중 취업을 병행한다는 것은 대학 입시를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경우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학비 조달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용돈을 버는 정도이므로 고등학생의 취업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대학 진학을 계획하지 않는다면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정신적·신체적 성장 단계에 있고, 학업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히 미성년자는 근로시간이 제한되고 야간업무나 휴일근무에 제약이 따른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5조에서 사용자는 미성년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 사업에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 재학생 유형별, 성별 아르바이트 이유

(단위: 명, %)

	전체	유형별			성별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남자	여자
전체 (표본 수)	1,493,548 (1,381)	61,997 (65)	1,396,944 (1,283)	34,607 (33)	817,890 (608)	675,658 (773)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2.0	6.3	1.8	0.0	3.1	0.6
학비를 벌려고	9.7	2.9	9.9	14.3	10.1	9.3
용돈이 필요해서	78.0	78.9	78.2	70.6	78.2	77.9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0.5	4.2	0.3	0.0	0.5	0.5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3.2	3.6	3.3	0.0	3.4	3.1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4.1	4.1	3.8	15.1	2.4	6.2
주위(부모님 혹은 친지 등)에서 시켜서	0.8	0.0	0.9	0.0	0.7	1.0
주위친구들이 하나까	0.6	0.0	0.6	0.0	0.6	0.6
기타	1.1	0.0	1.2	0.0	1.2	1.0

주: 1) 무응답, 응답거절, 모름은 분석에서 제외.

2) 아르바이트 경험 5회까지 중복응답 포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2), 2011 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표 5. 청년층 아르바이트 종류

(단위 : 명, %)

	전체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전체 (표본 수)	1,494,485 (1,382)	61,997 (65)	1,397,881 (1,284)	34,607 (33)
사무(보조) 관련	6.9	0.0	7.2	9.7
교육 관련	15.7	0.7	15.5	50.6
보건의료, 사회복지 관련	1.9	0.0	1.9	8.4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	3.8	2.7	3.3	27.8
운송 관련	2.5	2.2	2.6	0.0
판매 관련	20.2	8.7	21.3	0.0
경비, 청소, 미용, 숙박, 스포츠, 여가 서비스 관련	13.6	10.0	14.1	0.0
음식서비스 관련(음식배달 제외)	27.8	60.8	27.0	3.4
건설 관련	2.7	4.1	2.7	0.0
제조 관련(수리, 정비 포함)	3.6	10.7	3.4	0.0
정보통신 관련	0.9	0.0	1.0	0.0
농림어업 관련	0.2	0.0	0.2	0.0

주: 1) 무응답, 응답거절, 모름은 분석에서 제외.

2) 아르바이트 경험 5회까지 중복응답 포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2), 2011 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

대학생도 일단 학생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학비 조달까지 하기 위해 취업을 하는 예는 흔치 않다.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대학 진학 자체가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나 취업은 학비를 벌거나 용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며 재학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점 이수와 졸업 후 취업 준비에 몰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나 취업은 학비를 벌거나 용돈을 조달하기 위한 것. 재학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점 이수와 졸업 후 취업 준비에 몰두하는 것으로 파악

다른 한편으로 재학생의 취업이 저조한 이유는 취업으로 인한 수입이 기회비용에 비해 적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청년 재학생이 취업하면 일자리 종류가 대부분 판매(20.2%)와 음식서비스(27.8%)에 집중되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업이나 전공과 연결되는 일이 적은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 인턴 일자리가 학력이나 연령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우

는 대부분 학교 졸업자의 몫이다. 특히 대학 재학생은 물론이고 고등학생은 양질의 인턴 경험을 하며 보수를 받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재학생 취업 국제 비교

가. 고용률과 취학률 비교

우리나라 학생들의 취업 병행이 저조한 이유는 입시 등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크고,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부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

우리나라 학생들의 취업 병행이 저조한 이유는 입시 등 학업에 대한 부담이 크고,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부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청년층 노동 공급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 유의미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와 비견할 수 있는 OECD 주요 회원국의 취학률과 고용률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15~1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2010년 6.1%로 OECD 평균 22.7%보다 15%p 가량 낮고, 이 연령층 고용률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의 53.1%에 비하면 무려 47%p 낮다. 이것은 단순히 취학률의 차이에 기인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 15~19세 청년층의 취학률은 2009년 87.5%로 네덜란드의 89.5%에 비해 2%p 오히려 낮다. 미국도 이 연령층의 취학률은 80.9%로 우리나라보다 약 6%p 가량 낮지만, 고용률은 우리나라보다 약 20%p 가량 높다. 호주도 우리나라와 취학률 차이는 8%p이지만 고용률은 40%p 앞서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고교 수준 교육 환경이 이들 국가보다 취업을 어렵게 하거나 취업과는 양립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겠다.

표 6. OECD 주요 회원국 청년층 고용률(2010년)

(단위: %)

연령층	OECD 평균	한국	호주	네덜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15~24세	39.5	23.0	60.7	63.6	50.1	45.5	30.3	38.5
15~19세	22.7	6.1	46.9	53.1	35.4	25.9	11.1	20.2
20~29세	63.6	58.3	75.8	78.8	69.9	66.7	62.8	66.4
20~24세	55.3	44.3	73.3	72.9	62.0	60.3	48.7	57.1
25~29세	71.6	68.2	78.3	84.8	77.8	73.1	76.8	76.3
15~29세	47.6	39.1	59.4	61.4	55.6	51.2	44.9	46.7

자료: OECD, OECD Stat Extracts.

대학교 취학 연령인 20~24세 청년층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20~24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2010년 44.3%로 OECD 평균 55.3%보다 11%p가량 낮고, 이 연령층 고용률이 가장 높은 호주의 73.3%에 비하면 무려 29%p 낮다. 이러한 고용률 격차는 단순히 취학률의 차이에 기인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 20~24세 청년층의 취학률은 2009년 52.6%로 호주의 43.1%에 비해 9.5%p 정도의 격차에 불과하다. 즉, 취학률 격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호주보다 고용률이 20%p가량 낮다. 네덜란드도 우리나라와 취학률 차이는 7%p이지만 고용률은 30%p 가깝게 앞서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대학 단계 교육 환경도 이들 국가에 비해 취업을 어렵게 하거나 취업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단계 교육환경은 어느 OECD 국가에 비해 취업을 어렵게 하거나 취업과 병행하기 힘든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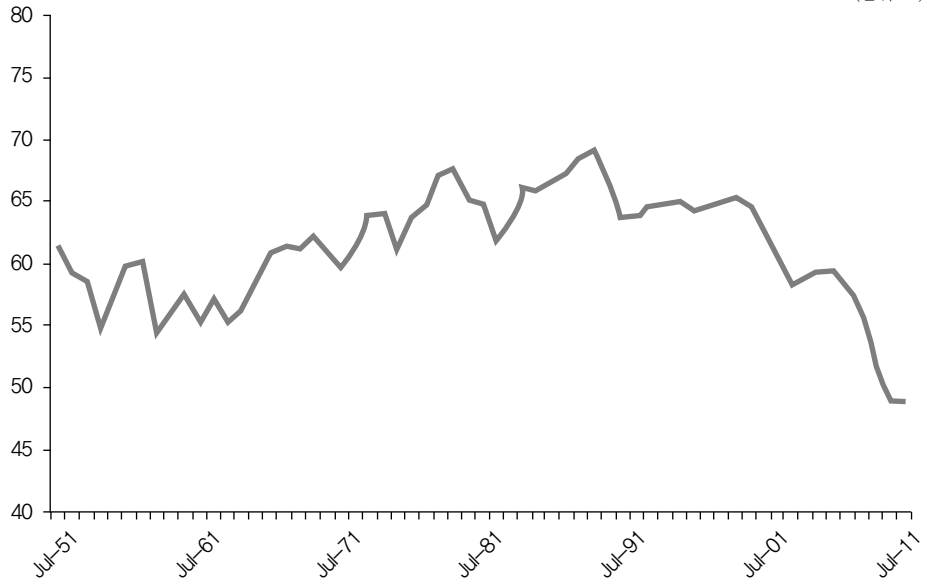
표 7. OECD 주요 회원국 청년층 취학률(2009년)

(단위: %)

연령층	한국	호주	네덜란드	영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15~24세	70.6	60.7	67.7	49.2	58.2	60.2	64.7
15~19세	87.5	79.7	89.5	75.3	80.9	88.0	87.2
20~29세	29.1	31.1	28.9	17.4	24.1	19.8	33.5
20~24세	52.6	43.1	45.7	25.0	35.5	33.2	40.5
25~29세	9.9	18.9	12.0	9.7	12.8	6.3	26.2
15~29세	48.0	46.5	49.3	35.8	43.0	42.2	52.6

그림 1. 미국 청년층(16~24세) 7월 고용률 추이

(단위: %)



나. 학비 부담자 비교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은 절반 수준도 되지 않는다. 학자금 용자를 학생 본인 부담으로 간주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생의 학비 부담 비율이 8%를 밑도는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학생의 소득과 저축 그리고 용자금을 합한 비중이 23.7%에 달하고 있다.

표 8. 학교급별 학비 부담자 현황

(단위: 명, %)

	전체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자
전체 (표본 수)	2,841,601 (2,752)	675,223 (775)	1,983,694 (1,830)	124,578 (111)	58,106 (36)
부모	88.5	98.2	88.1	65.6	35.5
형제, 자매	0.3	0.0	0.4	0.0	0.0
친척	0.2	0.3	0.1	0.0	0.0
장학금	3.8	0.5	3.6	24.6	0.0
본인	2.9	0.2	1.7	8.0	64.5
조부모	0.2	0.5	0.1	0.0	0.0
학자금 용자	4.0	0.2	5.6	1.7	0.0
배우자	0.1	0.0	0.2	0.0	0.0
기타	0.1	0.1	0.2	0.0	0.0

주: 무응답, 응답거절, 모름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2), 2011 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학비 부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90% 가까이 부모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부모의 부담은 4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학생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이나 저축으로 연간 2,314달러 가량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비록 전체의 9.6%에 해당되는 금액이지만 학생 본인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대학을 다닐 형편이 아니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의외로 높다.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학생의 47.3%는 자기 자신이 취직하여 번 돈이 없었더라면 학업 지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표 9. 미국 대학생의 학비 부담(2010년)

(단위: 미국 달러, %)

	전체	장학금	친지/친구	학생		부모	
				소득/저축	학자금 용자	소득/저축	학자금 용자
금액	24,097	5,692	1,682	2,314	3,396	8,752	2,261
비중	100.0	23.6	7.0	9.6	14.1	36.3	9.4

자료: Sallie Mae(2010), "How America Pays for College: Sallie Mae's National Study of College Students and Parents Conducted by Gallup".

표 10. 미국 대학생의 취업 이유(2003~2004년)

(단위: %, 미국 달러)

취업 이유	전체	소득수준 하위 1/4(Q1)	Q2	Q3	소득수준 상위 1/4(Q4)
등록금 지급	49.8	61.5	55.6	47.3	34.8
생활비 마련	37.9	27.1	33.8	40.4	50.0
취직 경험	8.4	7.0	6.7	8.3	11.6
미취업 시 학업 지속 불가 학생 비율	47.3	58.3	54.5	45.6	30.1
증위소득	74,003	21,634	51,703	80,982	142,631

자료: Judith Scott Clayton, "What explains trends in labor supply among U.S. undergraduates, 1970~2009?" Working Paper 17744, NBER, January 2012.

다. 재학 중 근로시간 비교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연령층인 20~24세 대학생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0년 기준으로 13.5시간이다. 미국의 경우는 2003~2004학년도 기준 14.0시간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약간 긴 편이다.

미국은 대학생의 학업-취업 병행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고, 학생 부모의 소득 고저에 상관없이 60% 이상이 취업 경험이 있음

미국은 대학생의 학업-취업 병행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학생 부모의 소득 고저에 상관없이 60% 이상 취업 경험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아울러 소득 상위계층 학부모 자녀에게도 근로장학금(Federal Work-Study program)의 혜택이 돌아간다. 물론 소득 상위계층 자녀는 다른 계층에 비해 돈보다는 직업체험을 위해 취업하는 비율이 높지만, 다른 소득계층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조달이나 생활비 지출을 위해 취업하는 비중이 85%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표 11. 미국 대학생의 근로시간 및 학기 중 취업 병행 비율(2003~2004년)

(단위: 시간, %, 달러)

	전체	소득수준 하위 1/4(Q1)	Q2	Q3	소득수준 상위 1/4(Q4)
주당 평균 근로시간	14,0	15,2	15,1	13,9	11,8
학기 중 취업 병행 비율	70,0	71,1	74,0	71,2	63,3
근로장학금 수혜 비율	18,8	26,5	22,3	16,4	9,9
중위소득	74,530	21,200	51,669	81,119	144,168

자료: Judith Scott Clayton, "What explains trends in labor supply among U.S. undergraduates, 1970~2009?" Working Paper 17744, NBER, January 2012.

라. 대학교 재학생 취업 비교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대학 재학생이 취업하는 직종은 전문직이 34.7%로 가장 높고, 서비스 종사자 22.9%, 판매직 19.5%, 사무직 11.1%, 단순노무직 10.9% 순이다. 미국은 전문직, 사무직, 기능직의 합계가 35%이고, 서비스직이 31%, 판매직 23%, 농어업/단순노무직이 11%로 우리보다 서비스와 판매직종 비중이 훨씬 높다.

대학 재학생이 취업하는 직종을 보면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서비스와 판매 직종 비중이 높음

표 12. 우리나라와 미국 대학 재학생 취업자 직종

(단위: %)

국가/직종	전문/사무/기능	서비스	판매	농어업/단순노무
미국 18~22세(2009년)	35	31	23	11
한국 20~24세(2010년)	46	23	19	12
한국 비학생 20~24세(2010년)	60	16	13	11

주: 미국 자료는 Current Population Survey를 이용해 추정된 것으로, Judith Scott Clayton(2012)에서 재인용. 한국의 경우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산출.

또한 재학생 취업업종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비스업종에 밀집돼 있다. 농림수산업이나 제조업의 비중은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미미한 수준이다. 서비스업종 중에서도 판매나 음식점 서비스 관련 업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아울러 재학생들은 대부분 소규모 업체에서 근무한다.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근무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재학생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종, 소규모 업체에 근무

표 13. 미국의 16~24세 취업자 종사업종(2011년 7월, 계절 조정 전)

(단위: 천 명, %)

업종	취업자 수	비중
여가 및接客업(Leisure and hospitality)	4,770	25.6
소매업(Retail trade)	3,869	20.8
교육 및 보건 서비스(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1,936	10.4
공공서비스(Government)	1,382	7.4
전문/사업 서비스(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s)	1,326	7.1
제조업(Manufacturing)	1,106	5.9
기타 서비스업(Other services)	898	4.8
건설업(Construction)	744	4.0
금융서비스(Financial activities)	716	3.8
자영업 및 가족 무급 종사(Self-employed and unpaid family workers)	397	2.1
농업 및 관련 산업(Agri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382	2.1
수송 및 전기수도(Transportation & utilities)	360	1.9
도매업(Wholesale trade)	342	1.8
정보서비스업(Information)	329	1.8
광업(Mining)	76	0.4

자료: BLS, http://www.bls.gov/opub/ted/2011/ted_20110826_data.htm#chart2

표 14. 우리나라 청년 재학생 취업업종(2011년)

(단위: %)

산업/연령대	15~19세	20~24세	25~29세	15~29세	30세 이상	전체
농림어업	0.0	0.1	0.1	0.1	0.0	0.1
광공업	1.7	0.8	0.2	1.0	1.9	1.1
제조업	1.7	0.8	0.2	1.0	1.9	1.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98.3	99.2	99.7	98.9	98.1	98.9
건설업	0.1	0.1	0.6	0.1	0.0	0.1
도소매, 숙박음식	66.7	40.4	22.1	48.5	15.1	47.7
전기, 운수, 통신, 금융	1.5	2.6	0.9	2.1	2.3	2.1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30.0	56.1	76.1	48.2	80.7	49.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 재학생을 위한 일자리 지원제도 비교

우리나라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청년인턴제도를 시행하고, 그 대상을 재학생을 포함한 15~30세 미취업자로 하고 있지만, 재학생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 밖에 고용부의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이나 교과부의 근로장학금제도를 통해 재학생들의 일자리나 일자리체험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수혜자 폭이나 수혜기간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¹⁾

재학생들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인턴제도를 활용하기란 매우 어려움. 미국의 인턴제는 학생교육고용프로그램을 통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음

미국의 인턴제는 학생교육고용프로그램(Student Educational Employment Program)을 통해 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먼저 학생임시취업프로그램(Student Temporary Employment Program: STEP)으로, 재학생에게 학기 중이나 여름방학에 일시적으로 보수를 받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일자리의 성격이 전공과 관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학생진로경험프로그램(Student Career Experience Program)으로, 이 제도는 Coop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하여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직장체험을 할 수 있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미국무부와 의회(Lyndon B. Johnson 프로그램)도 별도의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민간단체로 1975년 설립된 워싱턴센터(The Washington Center) 재단은 워싱턴 소재 양질의 기관에서 학생들이 인턴십을 통해 직장체험과 학점인정을 동시에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35년간 모두 5만 명의 학생들이 이들 회원기관을 통해 인턴십 혜택을 받았다. 학교와 기업을 중개하는 비영리 단체인 전국대학기업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s and Employers: NACE)도 전국에 6개 지부를 두고 2,000개 이상 대학교의 취업지원 담당자 5,200명과 산업계의 인사 전문가 3,000명 이상을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각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연방근로장학제도(Federal WorkStudy Program)를 통해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2011년 총 71만 3,000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보았다.

1)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수혜자는 2006년 64,596명, 2007년 63,318명, 2008년 25,711명이다. 이 제도의 수혜기간은 2개월 정도이며, 체험 후 연수수당은 월평균 30만 원 정도였다. 근로장학금제도의 경우 2011년 대학생 2만 5천 명(전체 대학생의 1% 수준)에게 총 760억 원을 제공하였다.

캐나다는 연방학생직장 체험프로그램과 대학생 코업/인턴제 운영, 유럽 국가와 호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습제도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일하면서 배우는 기회 제공

캐나다의 연방학생직장 체험프로그램(Federal Student Work Experience Program) 역시 재학생들에게 임시 또는 전일제 일자리와 직장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매년 9,000명의 학생에게 신규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연간 수혜자는 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매년 4,000명가량의 대학생에게 신규로 인턴십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학생 코업/인턴제(Postsecondary Coop/ Internship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 국가들과 호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습제도(Apprenticeship)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일하면서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7년도 신규로 모두 18만 4,000명에게 견습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이를 위한 예산은 10억 2,600만 파운드(한화 1조 8,400억 원) 규모에 달하였다.²⁾ 호주 역시 견습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 모두 1억 호주 달러(한화 1,180억 원)를 투입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멘토십 프로그램에도 1억 호주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Ⅲ. 시사점

중장기적으로 청년층의 노동 공급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전일제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파트타임 업무를, 방학 중에는 전일제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

중장기적으로 청년층의 노동 공급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첫째, 비경제활동인구인 전일제 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파트타임 업무를, 그리고 방학 중에는 전일제 취업을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고등학교 재학생의 취업은 임시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입시사정관제도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대학의 학생 선발 시 단순히 시험성적 이 아닌 특별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창의력, 인성, 판단력을 학생과의 인터뷰와 교사의 추천장을 통해 판단한다는 시도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확산될수록 학생들의 재학 중 취업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중고등학생의 취업이나 자원봉사활동 체험도 학생의 흥미나 창의력 및 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 대학입시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아


2) 고용노동부(2009), “청년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인턴십 제도 연구-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중심으로-”, p.49.

올러 우리나라에서 선취업-후진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재직자 특별전형이 확대되거나 대학입시 합격 후 일정 기간 취업을 위해 입학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는 등 재직 중 새로운 입시를 위해 준비하는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의 교육내용을 연구 중심에서 더욱 실무적인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사 관리를 재학생의 직장체험을 권장하거나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고용 비수기인 겨울방학 기간을 줄이고 고용 성수기인 여름방학 기간을 길게 조정하는 것 역시 학생취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학생의 인턴십이나 견습제도(apprenticeship)형 학습이 보다 많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산업계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 기업에서도 재직자의 교육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재직자의 학업 병행이 좀 더 용이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청년인력 부족 시대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유연근무제 등도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 시 고졸학력을 요구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고졸 사원을 채용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학 졸업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도 재학 중 취업경력을 중시한다면 학생들의 현장 실무능력 제고 노력이 더해지고 학생취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년들의 직종은 대부분 서비스업이나 판매활동과 연관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직종의 근무환경은 대부분 취약한 편이다. 특히 연소자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장시간 노동 및 성희롱 등 부당 노동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사회적으로 청소년 근로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공이나 희망직종과 관련된 양질의 정부·민간 인턴십이나 견습훈련 과정을 통해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취업프로그램, 근로장학금제도나 기타 국가 또는 민간 지원 청년일자리사업이 확충되어야 한다. 

학교의 교육내용을 연구 중심에서 실무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사 관리를 재학생의 직장체험을 권장하거나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식으로 개선할 필요

부록. 정부지원인턴제의 국제 비교

사업특징	미국	영국	캐나다	한국
인턴십 프로그램	국무부 인턴프로그램 의회 LBJ인턴 프로그램 TWC	New Deal	YES 프로그램 Federal Public Sector Youth Internship	청소년직장체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행정인턴제 공공기관 인턴제
참여자격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보통 대학 3, 4학년)	18~24세의 청년이며, JSA 6개월 이상 인 자	15~30세 미만의 미취업, 미취학자, 동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는 자	만 15~30세 미취업자 (재학생 등 포함)
참여기간	프로그램에 따라 10주, 15주로 다양 (일반적)	기본 6개월 (연장가능)	9~12개월 (기준: 학력 및 연령)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 1~4개월 (6개월까지 연장가능) 공공기관: 1~2개월
인센티브	학과목으로 인정 및 학점인정	고용주에게 임금 보조금 지원 (주당 60파운드)	임금보조금 지원 (월 1,350~1,500달러)	고용주에게 임금 보조금 지원 (민간기업: 월 40만 원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월 30만 원) 우수연수기업(기관): 기업연수지원경비 30% 추가 지급 민간기업: 연수생 1인 당 월 5만 원
임금수준	유급(민간기관): 주당 445~750달러 공공기관: 무급(교통비 지급)	유급(풀타임과 파트타임 차등임금)	유급(학력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이 다르며, 차등임금)	유급(풀타임과 파트타임 차등임금)
관리방식	Supervisor가 참여기간 동안 카운슬링 (TWC에 한함)	Personal Advisor가 기간 내내 전담관리	Mentor(지원자로 구성된 취업자)가 기간 내내 카운슬링	해당기관은 연수조건에 대하여 연수협약서를 체결

자료: 노동부(2009), "청년고용문제해소를 위한 인턴십제도 연구"에서 재인용.